

## 新 수산 정책 추진

조일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우리나라 수산업 여건은 여러모로 어렵다고 평가된다. 밖을 보면 FTA를 통해 외국산 수산물들이 점점 더 많이 수입되고 있고 WTO에서는 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줄이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을 보면 어촌의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되었고 바다 쓰레기, 유류 오염,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이나 복지 등 생활 여건은 가장 열악하다. 수산물 자급률이나 국가 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웰빙 열풍을 타고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은 점차 늘어나는데, 국민 건강 차원에서나 식량 안보 차원에서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한 수산물로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신토불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국민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 여건이 변화되면서 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참다랑어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참다랑어를 키워서 수출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 숲이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협으로만 느껴지는 시장 개방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인접한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바로 ‘新 수산 정책’이다.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시대의 새로운 수산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新 수산 정책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新 수산 정책은 기존 수산 정책에 비해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자율·자립·자강이라는 3대 정책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어업인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없기에 자율·자립·자강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철저한 현장 위주의 정책이다. 어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느끼는 고충이 무엇인지,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3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구조 조정에서 인력 육성까지 30개의 프로젝트는 각각의 정책 포럼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소규모 전문가 그룹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개월 남짓 되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상당히 도출되었다.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수산 보조금 개편에 대한 ‘4대 원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각 프로젝트별로는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 VISION

자율·자립·자강 수산업

## 3대 정책이념

自

律 :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

立 : 어업인, 어촌경제체, 수협인 자립능력 강화

强 : 수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6대 전략과제

1. 연근해어업 정비 및 재편 2. 친환경 녹색 양식 3. 해외어업 진출 확대
4. 수산식품 개발 및 유통 개선 5. 어촌 활력 증진 6. 수산 거버넌스 개편

6대 전략 과제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1. 연근해어업 정비 및 재편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체계 개편 2) 지역별 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 3) 총허용 어획량 제도 발전 4) 연근해 고래 자원 활용 5) 기후변화 대응 어업 규제 완화 6) 동해 북한 수역 입어 추진 7) 어업 허가 일제 정비
2. 친환경 녹색 양식	8) 친환경 어업 육성 9) 외해양식 발전 10) 어장 환경 관리 시스템 개선 11) 유휴 갯벌어장 활용관리제도 12) 내수면 어업 진흥 13) 불법 양식어업 정비체계 개선
3. 해외어업 진출 확대	14) 해외 수산자원 개발 15) 어선 건조시스템 개발 16) 수산분야 전략적 ODA 확대
4. 수산식품 개발 및 유통 개선	17) 수산식품산업 진흥 18) 산지 위판제도 개선 19) 공동어시장 및 국제도매시장 발전 20) 소금산업 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
5. 어촌 활력 증진	21) 어촌계 선진화 22)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23) 어촌관광 활성화 24)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25) 어업 인력 육성 활성화
6. 수산 거버넌스 개편	26) 수산자원 조성 전문 법인 설립 27) 수산업 지도 단속 체계 개편 28) 수산 보조금 개편 29) 어업정책보험 효율화방안 마련 30)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新 수산 정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면 프로젝트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 있다면 기존의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뛰어어드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30대 프로젝트'가 핵심 골격이 될 예정이다. 30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숙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그 다음은 탄력이 붙어 우리나라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 산업으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저탄소 녹색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오늘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